

종합·해설

‘노-김 대화록’ ‘정수장학회’ 쟁점 부상

대선후보 검증무대 회오리 전망

새누리-민주당, 진상규명 요구 국정조사 공방

국감 보이콧 논란 속 네거티브전 본격화 양상

18대 대통령 선거가 14일로 두 달을 조금 남게 남긴 가운데 대항 쟁점이 나타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이른바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추진 등이 대선 기간 전체를 뒤흔들 주요 이슈로 등장, 불안정한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관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지분 매각을 통한 박 후보 지원 추진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박의 중심에 서 있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실제 문 후보는 지난 12일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박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제공격을 했고, 박 후보는 같은 날 “이것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 아니겠느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매각 추진에 논란도 거세졌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100%)과 MBC 지분(30%) 매각을

추진하고 MBC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최근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단-문방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 그리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주식 30%를 매각해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나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후보의) 아버지가 착취한 재산을 팔아 팔아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다시 일으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는 관계가 없고, 이번 사건 역시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 불거진 문제이지 박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대위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수장학회를 문제삼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논란과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매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가 일찍이 대선 후보 검증무대로 변질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성 자료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네거티브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선대위 참여 지역인사 논란
“김경재·김규욱·임향순 등
과거행보 민심대변 힘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 일부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행보가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는 등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에 취약하고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대통합의 이미지도 결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김경재 전 새천년 민주당

위원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화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는 등 ‘오락가락’ 정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김규욱 상임공동대표는 왕성한 노인복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 청에서 지급한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연합회 총재도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호남향우회 명의의 지지 선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 광주 국민통합 2012 의장도 상당기간 지역에서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박 후보 선대위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해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선대위에 참여한 지역 인사들이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는 힘들다”며 “인재 풀이 좁은 상황을 이해하는 하지만 이번 인선은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심상정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청계6가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 자정, 후 조치’
안철수, 재벌개혁안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4일 재벌 스스로에 개혁의 기회를 주고 미흡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 자정, 후 조치’ 내용의 재벌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7대 재벌개혁과제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는 ▲재벌 총수 불법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강화 ▲소환장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및 지주회사 지배구조 투명화 ▲재벌 총수 전월 급여로 요약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후보 단일화 어디까지 왔나

문 “조국 위원장으로한 ‘정치혁신위’ 구성” 제안
안 “단일화 기구 아직은 부적절” 시기상조 입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14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공식제안했다.
진성준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후보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위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 교수의 3단계 단일화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되어 생각하며 이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가 지난 12일 제안한 3단

계 단일화 방안은 1단계로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당 및 정치혁신 방안을 논의한 후 2단계로 공동의 정당정책을 확립해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후 3단계에서 두 캠프 세력간계를 조율하는 것이 3단계 단일 방안의 최종 목표다.
진 대변인은 “공동 정치혁신위원회는 양측이 반반 동수(同數)의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조 교수를 합의해 선임하자”며 “안 후보 측이 지금 당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후보 단일화 전체 없이 정치혁신을 위

한 공동의 실천방안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조 교수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자 “단일화를 위한 기구 같은 것은 아직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 측은 조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에 대한 안 후보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캠프 차원의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 대변인은 “조 교수와 사전에 논의는 안 했다. 공동 위원회를 만드느냐 캠프 내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심상정 “1% 특권층에 맞서 99% 국민위해 싸우겠다”

서울 전태일 다리서 대선 출마 선언

통합진보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14일 제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6가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군림해 온 1% 특권층에 맞서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령이 되겠다”며 대선 경쟁에 나섰다.

심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생명·생태·생활의 세 박자 복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국가양육책임제, 무상의료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인상 등 생활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며 “학력차별 금지법,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개혁으로 학벌과 입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사회부총리제 등 정치행정 전 분야의 개혁을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에 관한 모든것!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TEL 062-52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주)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정원이사 010-8227-7759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